2010년
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

2011. 04

한국콘텐츠진흥원
KOREA
CREATIVE CONTENT
AGENCY

Ⅲ. 2010년 4분기 콘텐츠산업 주요 이슈

4. 방송산업(독립 제작사) 주요 이슈

□ 국내동향

- 2011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“2011년 미디어정책 대국민보고대회”를 개최하고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함
  - 문화부는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, 방송콘텐츠 선진화 기반 구축, 출판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등 “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2011년 3대 역점 추진 방향”을 설정함
  - 또한 총 11개의 “미디어 분야 제도개선 과제”를 발표함. 뉴스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 확산, 인터넷 신문 신뢰성 제고, 방송사와 제작사간 외주제작 제도개선(외주제작 표준계약서 확립 등), 간접광고 제도개선(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 등) 등이 포함됨
  - 문화관광부는 “미디어환경 변화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미디어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며 국민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
- 2011년 1월 16일 폐막한 서울 국제 3D 페어는 세계 최초의 3D관련 박람회로 다양한 관련 상품이 전시되었으며 나흘간 약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함
  - 2AM, 소녀시대, 샤이니 등의 3D콘서트 영상물, “디워3D” 홍보 영상, “디노 어드벤처”, 헐리웃 영화 “300”과 “타이타닉”의 3D변환영상 등 다양한 관련 콘텐츠가 선을 보임

- 2011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. 이로써 수신료는 기존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상향될 전망임

- 이번 인상안은 곧 국회로 보내져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임
- 방송통신위원회는 “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말함

◉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 방송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전망임

-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에이(동아일보), 제이티비씨(중앙미디어네트워크), 씨에스티브이(조선일보), 매일경제티브이(매일경제신문) 등 4개사를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함. 보도채널은 연합뉴스가 선정됨
- 종편채널 등장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며 특히 드라마, 다큐,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업체와 기획사 등 방송관련 콘텐츠 업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

◉ 케이블채널 엠넷(Mnet)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MBC의 “위대한 탄생” 등 오디션장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이 지상파에도 확대되고 있음

-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“아메리칸 아이돌”이나 “유캔댄스”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. 케이블TV 엠넷이 09년부터 제작한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가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 활발해지고 있음
-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공감을 얻는데 강점을 지녀 선진국은 물론 각국에서 점차 관련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인터넷, UCC,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을 대중에게 드러내는데 익숙하고 같이 공감하길 즐기는 젊은 세대에게 잘 어필하고 있음
-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신인들이 이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활

동을 펼쳐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

- '10년 11월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"2010년 하반기 디지털콘텐츠(DC)대상" 시상식을 개최함
  - 3D/CG 콘텐츠 분야에선 3D엔터테인먼트의 "3D입체영상 호랑나비의 일생", 모바일/IPTV 콘텐츠 분야에선 오피스하라의 "피그말리온의 사랑", 교육/정보 콘텐츠 분야에선 금성출판사의 "English Buddy"가 각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됨

- 민영 미디어렙(광고판매 대행회사)이 도입될 경우 방송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전망. 2011년 2월 현재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디어렙 도입 법률안이 논의 중
  - 미디어렙 도입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종합편성채널 등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있음.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채널의 광고 의무위탁 대상 편입 여부도 쟁점 가운데 하나
  -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(코바코)는 미디어렙 도입에 대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마케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

- 2010년 10월 14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까지 MBC, KBS, SBS 등 지상파 3사의 간접·가상광고 관련 매출액은 총 45억2천만원에 달함. 가상광고 매출은 38억5천만원, 간접광고는 6억6천만원 기록
  - 반면 케이블TV업계 매출은 지상파의 11분의 1인 3억8천만원으로 저조함. 케이블TV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매출은 각각 1억5천만원, 2억3천만원 기록
  - 일각에선 향후 중간광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케이블TV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

□ 해외동향

- 디스플레이 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3D TV 전세계 수요가 320만대 수준. 이는 종전 예측치 340만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특히 세계 최대 3DTV 시장인 북미 지역 판매량이 160만대로 저조한 것에서 기인
  - 디스플레이 서치는 3D 콘텐츠 부족과 북미 지역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꼽음. 그러나 2011년엔 1740만대 판매를 예측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
  -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"아바타"가 3D붐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향후 양질의 킬러 콘텐츠가 꾸준히 시장에 공급될 때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가 가능할 것임
  - 올해 3D TV의 세계시장 출시는 방송산업뿐만 아니라 영화산업, 게임산업 등 주요 콘텐츠 업계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, 3D TV의 보급 증가와 더불어 3D 방송과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방송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있음
- 중국은 방송과 인터넷, 통신을 통합한 '3망융합'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IPTV 사업이 혜택을 볼 전망
  - '3망융합'이 이루어지면 네트워크의 공동 구축과 이용이 가능해져 비용이 절감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 -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에 대해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, 시사 프로그램의 중계방송(제작은 금지), 휴대전화 방송 서비스 등이 허용될 예정